KIA 추석 6연전 '가을야구' 선물할까

왼쪽부터 지크·양현종·헥터.

■ 프로야구 중간순위(9월12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129	82	1	46	0.641	0.0
2	NC	121	70	2	49	0.588	7.5
3	넥센	128	70	1	57	0.551	11.5
4	SK	132	65	0	67	0.492	19.0
5	KIA	128	62	1	65	0.488	19.5
5	LG	128	62	1	65	0.488	19.5
7	한화	127	58	3	66	0.468	22.0
8	삼성	125	56	1	68	0.452	24.0
9	롯데	126	56	0	70	0.444	25.0
10	kt	126	48	2	76	0.387	32.0

반경기차 숨막히는 4강 싸움… 넥센·LG·한화와 승부

신종길 등 부진 톱타자 부재·꼬인 마운드 극복이 관건

4강 싸움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주가 KIA에는 '카우트 펀치'다.

4위에서 한 주를 시작한 KIA는 SK전 2패로 자리를 내준 뒤 3연패 위기를 넘기며 공동 5위로 간신히 숨을 돌렸다. LG와 62승1무65패의 동률을 기록한 KIA는 반 경기 차에서 SK를 바라보고 있다.

시즌이 막바지로 향해가면서 KIA는 남은 16경기에서 승리에 도전해야 한다.

16장의 카드가 남았지만 마지막 카드까지 열어볼 필요도 없이 일찍 길이 갈릴 수도 있다. 험난한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가 KIA에게는 결정적인 승부다.

일단 13·14일 안방에서 '얄미운' 넥센을 만난다. 올 시즌 KIA는 넥센에 2승10패를 기록하면서 절대적인 열세에 빠져있다. KIA에는 냉정한 넥센이지만, 4강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SK·LG에는 똑같이 6승10패를 기록하면서 KIA의 4강을 저지하고 있다. 지난주 LG·SK와의 원정에서도 넥센은 4연패를 기록하면서 KIA를 울렸다.

넥센을 넘어서면 순위 싸움에 불을 붙이고 있는 LG 그리고 한화와의 원정경기가 기다린다.

LG는 3연승을 달리고 있고, 한화는 4연승으로 불꽃을 태우고 있다. 5강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두 팀과의 맞대결인 만큼 1승의 가치는 더 크다. 반대로 패배는 더 치명적이다.

지크를 시작으로 막을 여는 한 주. 순리대로 마운드를 풀어가야 한다.

지난주 NC와의 홈경기에 이어 주말 kt 원정에 나섰던 김기태 감독은 마운드에 승부수를 띄었다. 8일 난적 NC와의 경기에서 7-4 승리를 거둔 뒤 9일 선발로 예상됐던 양현종을 대신해 '임시선발' 홍건희를 마운드에 세웠다. 주말 확실한 승리를 위한 계산이었지만 결과는 계산과 달랐다.

8일 9회 무사 1·2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7-8로 아쉽게 고개를 숙인 KIA는 9일에는 '8회 7실점' 끝에 충격적인 6-9 역전패를 당했다. 빗나간 마운드 계산에 불펜 운영이 꼬이면서 결과적으로 두 경기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

벤치의 전략 실패로 큰 위기에 놓였던 KIA는 11일 9회 위기를 어렵게 넘기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다. 이날 경기 전에도 김기태 감독은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운명 같은 6연전을 앞두고 순리대로, 치밀하게 경기를 계산해야 한다.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타선의 영웅이 필요한 KIA다. 안치홍·나지완의 부상 속에 김주찬과 이범호가 힘들게 타선을 끌고 가고 있다.

특히 톱타자의 부재가 크다. KIA는 지난주 안치홍-신종길-윤정우에게 톱타자 역할을 맡겼다. 안치홍의 부상으로 신종길이 대신 앞에 섰지만 사구에 여파로 11일에는 윤정우가 데뷔 후 첫 1번 자리에서 선발 출장했다.

하지만 1번 타자들이 6경기에서 만든 안타는 5개. 골라낸 볼넷은 하나에 불과했고 삼진은 5개였다.

잠시 뒷걸음질을 쳤던 KIA가 4강 경쟁자들을 향해 카운트 펀치를 날릴 것인가, 카운트 펀치를 맞을 것인가. 숨막히는 4강 싸움이 KIA를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관중 800만 눈앞

11일 738만명 '역대 최다'
삼성 64%·넥센 55% 증가
KIA 원정서도 티켓 파워
KBO, 837만 고지 내다봐

역대 최다 관중을 넘어서 KBO리그가 사상 최초의 800만 관중을 노린다.

지난 11일 잠실, 대구, 수원, 고척, 대전에서 열린 5경기에 7만5817명이 입장하면서 2016 KBO리그 누적관중이 738만4752명(평균 1만1630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다 관중인 2015년 736만530명을 넘어선 수치다.

2007년 이후 9년 만의 평일 개막으로 관심을 올 시즌 KBO 리그는 지난 4월1일 역대 평일 최다 관중인 8만5963명의 기록과 함께 막을 올렸다. 이후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11만4085명이 야구장을 찾으면서 역대 하루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다.

KBO 리그 전체 관중은 전년대비 13%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10개 구단 모두 증가 추세다.

특히 새로운 안방에서 시즌을 시작한 삼성과 넥센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새 시대를 연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와 넥센의 고척 스카이돔의 관중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64%와 55% 증가했다. 구단 자체 최다 관중 기록도 갈아치웠다. 삼성은 올 시즌 홈 63경기에서 75만7089명(평균 1만2017명)의 관중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46만1943명(평균 7332명)보다 64% 증가했다. 지난해 49만3535명(평균 7051명)의 관중을 동원한 넥센은 55% 증가한 76만2533명(평균 1만893명)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선두 두산(104만8856명)은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최초로 8년 연속 100만 관중을 기록, 팀 성적과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KBO 리그 최다 시즌(10시즌) 100만 관중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LG도 홈 관중 96만8170명으로 통산 11번째 100만 관중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 시즌 64번의 홈경기에 68만7773명(평균 1만746명)이 찾은 KIA는 원정에서도 티켓파워를 과시하고있다. KIA는 올 시즌 고척 원정에서 세 차례나 1만7000관중을 끌어모으며 매진 사례를 장식했다. 6월19일 LG전, 7월30일 SK전에는 2만6000명이 들어서면서 잠실과 문학의 매진이 이뤄졌다. 6월25일에는 마산구장의 1만1000석을 가득 채우는데 역할을 했다. 지난 5월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주중 두산 원정에서도 세 경기 연속 2만명 이상이 찾았다. 또 KIA는 지난 10일 수원 원정에서도 매진(2만)을 이끌었다. 11일에도 19만150명이 위즈파크를 찾는 등 KIA가 관중 몰이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KBO리그는 지난 4일 역대 3번째로 700만 관중을 돌파한 이후 7일 만에 '최다 관중 신기록'을 작성했다. 아직 85경기나 남은 상황인 만큼 KBO는 사상 최초의 800만 관중을 넘어 837만 고지까지 내다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ET 홈페이지 제공〉

김인경 유러피언 마스터스 2년만에 탈환

17언더파…2위와 5타차

김인경(28·한화)이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ISPS 한다 레이디스 유러피언 마스터스(총상금 50만 유로) 우승을 차지했다.

김인경은 12일(한국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의 후벨라트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몰아쳐 9언더파 63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의 성적을 낸 김인경은 벨렌 모소(스페인)를 5타 차이로 넉넉히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7만5000유로(약 9300만원)다.

김인경은 2014년에 이어 이 대회 패권을 2년 만에 탈환했다. LET에서는 2009년 오메가 두바이 레이디스 마스터스 우승까지 더해 통산 3승을 거뒀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도 3승을 기록 중인 김인경은 15일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 대한 전망도 밝게 만들었다.

김인경은 LET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2년 전에는 잉글랜드였는데 이번에는 독일에서 우승해 느낌이 다르다"며 "교민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을 보내줘 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김시우 PGA PO최종전 진출

한국남자골프의 영건 김시우(21·CJ대한통운)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에 진출했다.

김시우는 12일 미국 인디애나주 카멀의 크룩트 스틱 골프클럽(파72·7516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플레이오프 3차전 BMW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타를 줄였다. 합계 7언더파 281타의 김시우(공동 20위)는 페덱스컵 랭킹 18위로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다.

투어 챔피언십은 페덱스컵 랭킹 30위 이내 선수들만이 출전, 시즌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대회다. 한국 선수가 투어 챔피언십에 나가는 것은 최경주, 양용은, 배상문에 이어 네 번째다. /연합뉴스

강정호 멀티안타

신시내티전 3타수 2안타
팀은 0-8 패하며 3연패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쾌조의 타격감을 이어갔다.

강정호는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 홈경기에 4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로 활약했다.

최근 2경기 연속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다. 강정호는 9월에 선발 출전한 6경기에서 4차례나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왼 어깨를 다쳐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강정호는 6일 빅리그에 복귀했고, 이후 타율 0.522(23타수 12안타), 4홈런, 10타점으로 활약 중이다.

이날 경기에서도 강정호는 피츠버그 타자 중 유일하게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1회말 첫 타석에서 2루수 뜬공으로 물러났지만, 이후 두 타석에서 안타를 생산했다. 강정호는 3회 상대 선발 브랜던 피니건의 시속 150㎞ 싱커를 공략해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5회 1사 1·2루에서도 피니건의 시속 148㎞ 싱커를 받아쳐 우전 안타를 쳐 만루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1사 만루에서 데이비드 프리스와 애덤 프레이저가 연속 삼진으로 물러나 피츠버그는 득점에 실패했다.

점수 차가 크게 벌어져 패색이 짙어지자 클린트 허들 피츠버그 감독은 7회말 공격 때 강정호에게 휴식을 주고 대타 맷 조이스를 투입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63에서 0.267(258타수 69안타)로 올랐다. 이날 피츠버그는 0-8로 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연합뉴스